

기관지 내시경 이후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김계연, 옥경삼, 송봉근, 박이내, 엄호기

Tako-tsubo 심근병증으로 알려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심혈관 조영술상 유의한 협착이나 폐쇄소견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좌심실 심첨부의 저운동과 ballooning 소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감정적 스트레스 혹은 급성 내과적 질병 및 진단적 시술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적 시술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내시경이나 기관지 내시경 이후에도 드물지만 스트레스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내시경 이후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년 전에 본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고 치료 받은 과거력 있는 68세 남자로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열, 기침, 가래, 좌상엽에 종괴 소견을 보여 내원하였다. 폐결핵의 재발 의심 하에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기관지 내시경 시술동안 환자의 생체 징후는 비교적 안정적 이었고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기관지 내시경 후 잠간의 의식소실이 있었고 흉부 불편감, 땀어찌는 양상의 흉통, 심계항진(당시 HR : 101)을 호소하였고, 당시 시행한 심전도 상에서 V 1-6 에 ST분절의 저하를 동반한 동성빈맥 소견, 혈청 심근효소수치 상 CK MB :26.7(정상치 :< 4.9 ng/ml) & Troponin T:1.93(정상치:<0.1 ng/ml), Pro-BNP :2061(정상치<150 pg/ml)으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응급으로 시행한 경흉부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은 40%, 경증의 좌심실 수축장애 소견을 보였고 심실 기저부와 중간심실 분절에서 심한 저운동 그리고 심첨부의 과다운동소견이 관찰되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전형적으로 좌심실 심첨부의 심한 저운동과 기저부의 정상 혹은 과다운동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환자에서는 기저부와 중간 심실부의 분절에서의 저운동 소견과 심첨부의 과다운동 소견을 보여 반전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소견을 보였다. 이후 흉통의 원인으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배제하기 위해 관상동맥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심혈관 조영술 결과 유의한 협착이나 폐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반전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진단하에 ACEI 와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며 보존적인 치료 시행하였고 이를 뒤 시행한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정상의 좌심실 수축력과 심실벽 운동 소견을 보였으며 ST 분절 저하 소견도 소실되었다.

소세포 폐암환자에서 항암 치료 후 발생한 flare phenomenon의 증례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내과학교실¹, 진단병리과교실², 방사선과학교실³*조현욱¹, 이호성¹, 최재성¹, 서기현¹, 나주욱¹, 김용훈¹, 오미혜² · 조성식³

배경: flare phenomenon은 1976 년 처음 보고되었으며 골전이와 있는 전이성 암에서 항암 치료 후 원발 병변은 항암치료에 호전을 보이거나 골전이 병변은 진행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유방암이나 전립샘 암에서 호르몬 혹은 항암 치료 후 보고된다. 이는 골전이 부분이 급속한 치료 반응을 보인 후 조골세포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flare phenomenon 이 나타난다는 것은 치료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의미한다. 증례: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49세 남자로 내원 1시간 전 발생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서 소세포 폐암 진단하였으며 이후 추가 검사에서 확장성 병기 소견을 보였고, PET CT 상 좌대퇴골과 3번 흉추에 골전이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뼈스캔상에서는 골전이 소견은 분명하지 않았다. Etoposide/Cisplatin을 이용한 병합 항암 요법으로 2차례 치료 후 추적 관찰하였고 원발 및 임파선 전이 병변은 부분적 관해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이거나 뼈스캔 상 3번 흉추와 좌대퇴골에 골섭취가 증가된 소견이 보였고, 오히려 PET-CT 상에서 이전에 관찰되었던 3번 흉추와 좌대퇴골의 골전이 소견은 소실되었다. 결론: 저자들은 소세포폐암에서 항암 치료 후 PET-CT 와 뼈스캔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flare phenomenon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